

#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재탄생

### 교육부, 광주 44동·전남 220동 대상 2025년까지 사업 추진 공간 혁신·학교 복합화로 건강·인성·효과적 학습 환경 구축

광주·전남의 40년 이상 낡은 학교 200여 곳의 건물 264동이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재탄생한다.

교육부는 최근 2025년까지 광주의 노후 학교 건물 44동, 전남 220동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전국 1400학교 건물 2835동으로 광주·전남은 9.3%에 해당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미래학교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조 5000억원이 들어간

다. 이중 사업비의 30%(5조 5000억원)는 국비, 70%(13조원)는 지방비다. 사업은 또 75%가 재정 투입, 25%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전남의 재정 투입 사업 규모는 광주 33동, 전남 166동이다. BTL 사업은 광주 11동, 전남 54동으로 계획됐다.

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요소는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 4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에 필요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

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혁신한다는 복안이다. 또 스마트교실에는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마련된다.

그린학교는 친환경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 자급 자족' 개념으로 건축된다. 학생들은 그린학교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은 물론, 체험형 환경 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 학습도 가능해진다. 학교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요 조사와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 의지를 확인한 뒤 이달 중 최종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사전기획, 8월부터 설계공고 및 BTL 사업 고시를 마치고 2022년 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지역 시도교육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올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의 경우 이번 사업이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 육성'을 목표로 혁신학교의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전남의 미래 학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미래학교의 큰 틀 속에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게 끝자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조직개편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을 신설해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학교단위 10개교로 시작해 2020년 학교단위 3개교, 영역단위 29개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영역단위 12개교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학교단위는 건물 전체를 바꾸는 중대규모 사업을, 영역단위는 학교의 일부 공간을 재구조화 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

변윤섭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우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업체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을 위한 전남형 공간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러시아 한국교육원에 전달 각종 물품 모집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은 지역 기관과 교직원들로부터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에 전달할 각종 물품을 모으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은 38개 교에 이르는 한국인 학교를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K-POP의 전 세계적 인기로 러시아 내 한국 문화와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 기관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한복·전통문화 스티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제공>

## 38학급 규모 광주 선운특수학교 설립 '속도'

광주 지역 특수학교 적정학급 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신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선운특수학교(가칭) 신축 설계공모에 접수한 8개 작품 중 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대행 기관인 조달청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뒤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지역 거점 특수학교의 정체성과 장애인 교육·생활적응 훈련 등 특수학교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담겨져 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설계규모 당선 업체에는 13억원 규모의 실시설계권이 부여됐다.

시 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중인 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 규모의 선운특수학교 설립을 추진중

이다. 광주 지역 공립특수학교 적정학급 초과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모 공립특수학교는 24학급으로 개교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56학급을 운영 중이다. 다른 2곳의 공립특수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운특수학교의 전체 부지는 1만4912㎡이다. 총 사업비는 288억원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2023년 3월 학생 수용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대, 초기창업패키지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성과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주관기관 사업 운영 실적과 지역창업 활성화, 창업 교육, 창업기업의 매출, 고용 등 창업지원 성과 등을 종합해 반영한 결과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19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전환, 현재까지 4년 연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대학 및 민간기관을 포함해 총 40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대가 주관기관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에 광주대는 초기창업팀을 모집해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지원, 투자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창업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대 창업지원단 최완석 단장은 "2021년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창업 선도대학의 역할을 확고히 해 창업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통해 2022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씩 총 3년간 최대 75억 원을 지원받아 초기창업자 발굴 및 아이팀 발굴, 창업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석·박사 과정 개설

전남대학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전남대는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영문 약칭 ETRI)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대 대학원에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 교수 및 ETRI의 실무자 등 교육인

력과 실험실습 기자재, 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상호 공동 활용하기로 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협동과정의 전공 분야는 ETRI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초공학 및 응용공학 전문분야를 모두 포함해 개설하기로 했으며,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채용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강대 평생교육처, 3월 2일 1학기 교육과정 시작

동강대 평생교육처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동강대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광주문화산업에 대해 좀 더 알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화와 채색화, 한국화, 문인화, 한글·한문서예 과정 등을 운영해 왔다. 또 호남항공관광과, 외식조리제빵과,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등 학교 교수진의 전문 지도와 함께 관련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교육 중이다.

특히 동강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바쁜 일상으로 평생교육처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온라인 교육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번 1학기에도 온라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25개 과정은 사이버 자격교육원(www.dkccyber.ac.kr)을 통해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